



부동산 대책 지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,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2.2. 땅집고는 「“세금 폭탄,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”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?» 제하 기사에서,
 - “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”고 보도하며, “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, 장특공 폐지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재경부 · 국토부 입장>

- 기사에서 언급된 “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”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이와 관련한 보도에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며,
 -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4310)
		담당자	사무관	오다은 (daeunly25@korea.kr)
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유리 (044-201-3317)
		담당자	사무관	고명운 (myounko@korea.kr)